

만성적 근심과 통제가능-통제불가능한 위협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최 혜 경[†]
인하대학교

본 연구는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의 낮은 통제지각이 정보탐색스타일과 정보탐색시간에 역기능적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58명의 대학생에게 근심질문지를 실시하여 근심수준이 높은 피험자 29명과 근심수준이 낮은 피험자 29명을 선발하였고 이들에게 유추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는 근심수준이 높은 집단이 근심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선택지탐색의 보속성이 높은 반면에,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에서는 두 집단간에 선택지탐색의 보속성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의 낮은 통제지각이 반복적 정보탐색을 일으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을 위한 심리학적 중재는 효율적인 정보탐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이 시사된다. 또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의 낮은 통제지각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시간제한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시사된다.

주요어 : 만성적 근심, 통제지각, 보속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 혜 경 / 인하대학교 철학과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FAX : 032-873-7080 / E-mail : vschk@hanmir.com

평소에 잘 적응하여 심리적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근심한다. 이와 달리, 문제 상황에 직면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항상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일시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근심한다.

근심은 영어의 “worry”를 번역한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근심은 “괴롭게 앓을 쓰는 마음”을 의미하고 걱정은 “근심으로 마음을 태우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심이 걱정보다 부정적 심리상태를 잘 표현하고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근심에 관한 관심은 Liebert와 Morris(1967)의 검사불안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근심을 검사불안의 인지적 요소로 간주하였는데, 이러한 근심의 개념은 일반적인 근심현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DSM-III-R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생활상황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과도한 근심”이 범불안장애의 중요한 진단준거로 포함되면서, 독립적 개념으로써 근심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근심은 당면과제의 수행을 방해하는 부정적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해 당면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Borkovec, Robinson, Pruzinsky, & DePree, 1983; Metzger, Miller, Cohen, Sofka, & Borkovec, 1990).

근심과 부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특히, 정상적 근심과 병리적 근심간의 차이점에 염두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불안장애환자들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잠재적 위협에 대해 근심하고, 다양한 내용의 위협에 관해서 근심하며, 보다 자주 근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rkovec, Shadick, & Hopkins, 1990). 따라서 병리적 근심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만성적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안장애환자의 근심경향성은 일반 모집단의 3배이고(Lader, 1975)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빈번한 증상도 근심인 것으로 나타났다((Eysenck & Eysenck, 1975; Stanley & Gibson, 1985; Goldberg, Bridges, Duncan-Jones, & Grayson, 1987; Goldberg & Huxley, 1980). 이는 만성적 근심이 불안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개념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적 근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Borkovec 등(1983)은 독립적 구성개념으로서의 근심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근심은 통제불가능한 연쇄적인 사고와 심상으로써 부정적 정동을 수반한다. 근심의 과정은 특정 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Wells(1994)는 근심이 부정적 사고의 연쇄이고, 다양한 문제해결방안을 탐색하고 문제해결행동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들은 근심이 문제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근심이 문제해결과 관련시켜 연구해야 할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근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근심은 불안의 인지적 요소로서, 개인이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그 문제상황이 앞으로 초래할 결과에 대한 부정적 사고인 동시에 문제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만성적 근심은 효율적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심리적 특성을 유발하여 문제해결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변인이다”. 특히 본 연구자는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탐색의 비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Tallis, Davey 및 Capuzzo(1994)는 근심이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비관주의와 부정적인 전망, 문제

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성, 수행방해 및 정서적 불편감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미침을 밝혔다. 이는 개인이 문제상황을 지나치게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하여 문제해결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적절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Borkovec 등(1983)의 보고를 고려하면 만성적 근심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만연될 것이고 이는 적절한 시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제해결은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D'Zurilla와 Nezu(D'Zurilla, 1986, 1990; Nezu & D'Zurilla, 1989)에 따르면 문제해결은 중요한 일반적 대처전략으로서, 개인이 일상적 문제상황과 그 정서적 효과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 D'Zurilla와 Nezu(1990)의 사회적 문제해결 모델에 의하면, 문제해결은 크게 문제지향과 문제해결기술로 구분된다. 문제지향은 새로운 문제상황에 적용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세트이고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수준을 반영한다. 문제해결기술은 문제의 규정, 문제해결의 대안의 고안, 의사결정, 해결방안의 수행과 확인으로 나뉘어진다.

Sadowski와 Kelley(1993)는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이 문제상황에서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세트를 보이고 문제해결기술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지각이 대학생의 우울과 디스포리아를 유의미하게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akey, 1988; Nezu & Ronan, 1988; Wierzbicki, 1984).

선행연구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자기비난적 귀인을 많이 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Tallis Eysenck, & Mathews, 1991; Davey, Hampton, Farrell, & Davidson, 1992; Meyer, Miller, Metzger, & Borkovec, 1990). 따라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문제해결능력을 낮게 지각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불안의 근심요소가 실패의 예측(Covington, 1986; Sarason, 1986),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관점 및 부정적 기대 특히, 지적인 능력에 대한 낮은 평가와 상관이 있었다(Blankstein & Flett, 1991; Blankstein, Flett, Boase, & Toner, 1990; Blankstein, Toner, & Flett, 1989). 뿐만 아니라 근심요소가 실패로부터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경향성, 실패경험에의 몰입 및 자기비난과 상관이 있었다(Flett & Blankstein, 1994). 이러한 연구결과는 근심이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낮은 지각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한다.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지각은 문제상황에 대한 지각과 문제해결과정에서의 반응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문제해결능력이 낮다고 지각한 사람은 다양한 문제해결행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고 수동적인 문제해결행동을 하며 그 결과로 문제해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부적응적 상태가 초래된다. 반면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지각한 사람은 다양한 문제해결행동을 모색하려는 동기가 높고 능동적인 문제해결행동을 하여 문제해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 적응적인 상태를 유지한다(MacNair & Elliott, 1992).

Butler와 Meichenbaum(1981)은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자기지각이 문제해결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와 일치되게,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지각과 과제수행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Elliott, Godshall, Shrout & Witty, 1990). 따라서 문제해결에 대한 주관적 자신감이 실생활의 문제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 여부를 결정하고 이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개인의 적응에 큰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lankstein, Flett 및 Batten(1989)과 Blankstein, Flett 및 Watson(1992)의 연구에서 검사불안의 근심요소가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높은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 또한 평가상황에 국한되는 검사불안의 근심요소뿐만 아니라, 만성적 근심도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과 관련 있었다(Davey et al., 1992; Davey, 1994; Dugas, Letarte, Rheume, Freeston & Ladouceur, 1995).

Tallis, Eysenck, 및 Mathews(1991)가 제안한 “증거에 대한 높은 요구(elevated requirement of evidence)” 모델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해결방안이 최선인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탐색하여 절대적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절대적 확신이 없으면 해결방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여 문제해결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 우유부단함은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지연시켜 문제상황의 미해결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키고 근심하는 기간을 연장시킨다.

뿐만 아니라, 검사불안의 근심요소가 통제감과 높은 부적 상관관이 있었고(Blankstein, Flett & Batten, 1989, Blankstein et al., 1992)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통제감인 개인적 통제감과 부적 상관관이 있었다(Davey, 1994; Davey et al., 1992). 이와 같이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부족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낮은 통제감과도 관련이 있었던 선행연구를 근거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는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낮은 통제지각을 하게 한다고 가정하여 볼 수 있다.

통제지각이란 개인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통제불가능성의 지각이 과제수행수준을 떨어뜨리고(Burger & Arkin, 1980, Gatchel & Proctor, 1976)

오류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herrod, Hage, Halpern & Moore, 1977). 이는 통제지각이 문제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반면 통제불가능성의 지각 또는 통제상실의 지각은 문제해결에 부정적 효과를 미침을 시사한다.

문제상황에 대한 통제지각의 정도는 어떤 대처방법을 사용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통제감을 지각하면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게 되고 대처의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낮은 통제감지각은 거리두기나 회피와 같은 정서중심적 대처를 선택하게 한다(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Meyer 등(1990)의 연구에서 만성적 근심과 통제욕구간에 부적 상관관이 있었는데 이를 통제지각과 관련시켜 설명해보면,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문제에 대한 통제지각이 낮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회피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ugas 등(1995)의 연구에서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의 근본적 원인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신념의 부족과 문제해결방안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절한 능력에 대한 신념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eyer 등(1990)과 Dugas 등(1995)의 연구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통제가능한 문제상황에서 통제지각이 낮기 때문에 능동적인 문제해결행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비효율적 문제해결을 초래함이 시사되었다.

병리적 근심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발생빈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는 만성적 근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Davey (1993)는 근심의 빈도와 강도뿐만 아니라 근심의 내용을 확인하는 측정도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질문지가 개발되지 못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내용에 대한 근심을 측정하는 근심내용질문지와 근심의 빈도 및 강도를 측정하는 펜실바니아 근심질문지를 모두 실시하고 두 질문지의 합산점수를 만성적 근심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한편 근심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질문지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Davey 등 (1992)의 연구에서 만성적 근심이 최근 몇 년간 가장 스트레스를 준 문제상황에 대한 회피적 대처 및 정보탐색과 관련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질문지연구는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스트레스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대처를 하는지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문제해결과정에서 보이는 독특한 비효율적 정보처리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탐색의 비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지연이라는 역기능적 효과를 미침을 실험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anis(1982)는 강한 스트레스가 과도한 경계성을 일으켜서 정보를 비조직적으로 탐색하게 만든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Keinan(1987)은 전기쇼크에 대한 위협으로 스트레스를 조작하고,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유추문제를 사용하여,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스타일과 의사결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성급하고 비체계적이고 불충분한 정보탐색을 일으키고 의사결정의 오류를 일으킴을 밝혔다.

본 연구는 낮은 통제지각과 저조한 과제수행간의 관련성이 입증된 선행연구(Burger & Akin, 1980; Sherrod et al., 1977)를 근거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의 낮은 통제지각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탐색의 스타일과 정보탐색시간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과제수행수준이 혐오적 자극의 회피와 관계 있다고 지각한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만성적으로 근심

하는 사람의 낮은 통제지각이 정보탐색의 스타일과 정보탐색시간에 두드러진 역기능적 효과를 미치고, 반면 수행수준이 혐오적 자극의 회피와 무관하다고 지각한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에서는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보다는 혐오적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을 실험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가설 1은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통제지각이 낮아서 수행수준을 낮게 예측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계성을 갖게 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비체계적으로 탐색할 것이고 반면에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 2는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통제지각이 낮아서 정보탐색과정에서 놓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지 못하여 동일한 정보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탐색할 것이고 반면에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 3은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통제지각이 낮아서 정보탐색을 오래 할 것이고 반면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방 법

피험자

본 실험의 피험자는 대학생 158명에게 펜실바니아근심질문지와 근심내용질문지를 실시하여 선 발되었다. 두 질문지의 합산점수가 상위 20%에 속하는 대학생 29명($M = 111.45$, $SD = 11.52$)이

근심수준이 높은 피험자로 선발되었고, 하위 20%에 속하는 대학생 29명($M = 47.59$, $SD = 8.40$)이 근심수준이 낮은 피험자로 선발되었다. 피험자는 두 가지 실험조건 중 하나에 무선했당되었다.

도 구

펜실바니아 근심질문지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Meyer et al., 1990).

이 질문지는 병리적 근심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근심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신뢰도계수 α 는 .92이다.

근심내용 질문지(Worry Domain Questionnaire; Tallis Eysenck, & Mathews, 1992)

이 질문지는 근심의 내용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2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5점 척도이다. 신뢰도계수 α 는 .87이다.

유추과제

이 과제는 Baradell과 Klein(1993)의 유추문제를 번안하고 이를 근거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중다선택지 유추문제로서, 총 20개의 문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유추문제의 각 선택지를 탐색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스타일과 의사결정전에 정보탐색에 소요한 시간을 알 수 있다. 문제가 제시된 후 1부터 6까지의 키보드 중 하나를 누르면 해당 선택지가 나타나며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지에서 입력키를 눌러 응답하게 되어 있다. 선택지 키보드를 누르는 순서나 회수는 피험자가 마음대로 하게 되어있다.

절 차

피험자가 실험실에 오면, 실험자가 피험자에게 실험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런 다음, 피험자에게 유추과제 수행요령에 관한 지시문을 컴퓨터화면으로 제시하였고 연습문제 6개를 풀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의 피험자에게는 “이제까지는 연습문제였습니다. 본 문제는 모두 40개의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연습문제에서의 수행수준을 기준으로, 앞으로 당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수준이 결정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목표정답률은 10문제 단위로 측정되고 이 목표수준에 미달하게 되면 다음 10문제를 푸는 동안에 ‘뽁’ 소리와 함께 전기쇼크가 가해질 것입니다. 이 전기쇼크는 인체에 해는 없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라는 지시문이 컴퓨터화면에 제시되었다.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의 피험자에게는, “이제까지는 연습문제였습니다. 본 문제는 모두 40개의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당신이 앞으로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상관없이 문제를 푸는 동안 ‘뽁’ 소리와 함께 전기쇼크가 가해질 것입니다. 전기쇼크가 가해지는 시점과 횟수는 컴퓨터로 프로그램 되었습니다. 이 전기쇼크는 인체에 해는 없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라는 지시문이 제시되었다.

전기쇼크가 주어진다는 실험상황이 피험자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실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물어보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실험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실험참여에 대한 강압은 없었다. 전기쇼크장치와 연결된 것처럼 위장한 두 개의 전극이 피험자가 쓰지 않는 손에 부착되었다. 그리고 ‘뽁’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 소리가 난 후에 전기쇼크가 가해질 것이다”라고 알

려주었다. ‘뻑’ 소리는 60dB로서, 컴퓨터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나서 전기쇼크장치의 스위치를 켜서 불이 들어오도록 하여 전기쇼크장치가 작동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과제수행의 시간제한은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런 후에 본 유추문제를 하라고 지시했다. 피험자가 유추문제를 푸는 동안 소음과 전기쇼크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피험자가 20개의 유추문제를 다 풀고 나면 “20개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5분간 휴식한 후에 나머지 20개의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라고 지시하였다. 피험자가 휴식하는 동안에 실험조작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11점의 라이커트 척도로 된 ‘전기쇼크에 대한 통제감지각 척도’에 표시하게 하였다. 그런 후에 피험자에게 웨슬러 지능검사의 바뀔쓰기과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컴퓨터 키보드를 눌러 선택지 탐색을 하는 본 유추과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택지 탐색시간이 개인차 변인인 시각-운동 협응속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피험자에게 실험이 끝났다고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해 피험자에게 디브리핑을 하였다.

실험설계

본 실험은 2(근심수준 고·저) × 2(통제가능한 위협 조건,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 요인설계이었다.

종속 변인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정도

이는 각 유추과제의 선택지 탐색에 있어서, 전방이나 후방으로의 숫자 순서에서 이탈한 회수를 측정한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정도가 높은 것이다.

선택지 탐색의 보속성

이는 각 유추문제에서, 이미 탐색했던 동일한 선택지를 반복해서 탐색한 회수를 측정한 것이다.

선택지 탐색시간

이는 피험자가 문제를 읽고 나서 처음으로 선택지 숫자 키보드를 누른 시점부터 답을 입력하는 키를 누르기 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초단위로 측정하고 평균한 것이다.

결 과

실험조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기쇼크에 대한 통제감지각을 변량분석한 결과, 통제가능-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57) = 20.57, p < .001$). 즉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의 통제감지각이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보다 더 높았다(통제가능한 위협조건 $M=5.64, SD=2.57$,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 $M=2.66, SD=2.42$). 한편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근심수준이 높은 집단이 근심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통제감지각이 낮은 반면(근심수준이 낮은 집단 $M=5.92, SD=2.75$, 근심수준이 높은 집단 $M=4.00, SD=1.93$, $F(1, 28)=4.68, p < .05$),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근심수준이 낮은 집단 $M=2.93, SD=2.76$, 근심수준이 높은 집단 $M=2.44, SD=2.16$, $F(1, 28)=2.69, p < .11$).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과 선택지 탐색의 보속성에 대한 변량분석

유추과제에서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 선택지 탐색의 보속성, 선택지 탐색시간의 집단별 통계

표 1.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 탐색의 보속성 탐색시간의 통계치

	(비체계적 탐색)		(탐색의 보속성)		(탐색시간)	
	M	SD	M	SD	M	SD
CNW	18.14	13.08	84.07	53.75	20.76	7.95
CW	24.69	17.15	143.00	84.62	26.16	10.57
UCNW	10.38	9.97	50.07	26.39	14.89	5.54
UCW	14.00	8.87	50.75	24.89	12.40	5.22

CNW : 통제가능한 위협, 저근심 CW : 통제가능한 위협, 고근심
 UCNW : 통제불가능한 위협, 저근심 UCW : 통제불가능한 위협, 고근심

치는 표 1과 같다.

유추과제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과 선택지 탐색의 보속성에 대해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에 대해 근심수준과 통제가능-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7) = .34, p < .55$]. 또한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에 대해 근심수준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7) = 2.35, p < .13$]. 반면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에 대해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7) = 7.18, p < .01$]. 즉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보다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이 더 높았다.

한편 선택지 탐색의 보속성에 대해 근심수준과 조건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7) = 4.56, p < .05$]. 선택지탐색의 보속성에 대한 근심수준과 조건의 상호작용효과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한 결과,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는 근심수준이 높은 집단이 근심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선택지탐색의 보속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F(1, 28) = 4.97, p < .04$],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에서는 선택지탐색의 보속성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28) = .005, p < .94$].

선택지 탐색의 보속성에 대한 근심수준과 조건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과 같다.

표 2. 선택지의 비체계적 탐색과 탐색의 보속성의 변량분석

변량원	(비체계적 탐색)				(탐색의 보속성)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근심	357.87	1	357.87	2.35	11962.91	1	11962.91	4.46*
조건	1093.02	1	1093.02	7.18**	57177.93	1	57177.93	21.33***
근심×조건	52.72	1	52.72	.34	12228.44	1	12228.44	4.56*
오차	8217.56	54	152.17		144714.86	54	2679.90	
전체	9641.39	57	169.14		9641.39	57	169.1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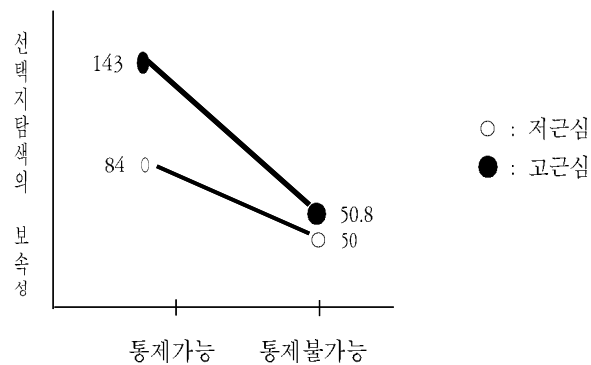


그림 1. 선택지탐색의 보속성에 대한 근심수준과 통제가능-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의 상호작용

또한 근심수준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7)=4.46, p < .05$]. 즉 근심수준이 높은 집단이 근심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선택지탐색의 보속성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선택지탐색의 보속성에 대해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7)=21.33, p < .001$]. 즉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보다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선택지탐색의 보속성이 더 높았다.

선택지 탐색시간의 변량분석

유추과제의 선택지 탐색시간에 대해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추과제의 선택지 탐색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인 시각-운동 협응속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웨슬러지능검사의 바뀔쓰기 과제의 전체환산점수를 공변량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7)=2.86, p < .09$]. 따라서 시각-운동 협응속도가 선택지 탐색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택지 탐색시간에 대해 근심수준과 조건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7)=3.22, p < .07$]. 또한 선택지 탐색시간에 대해 근심수준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7)=.66, p < .42$]. 한편 선택지 탐색시간에 대해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7)=$

표 3. 선택지 탐색시간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근심	34.04	1	34.04	.66
조건	1114.62	1	1114.62	21.61 ***
근심×조건	166.22	1	166.22	3.22
오차	2733.52	54	51.57	
전체	4585.01	57	80.43	

*** $p < .001$

21.61, $p < .001$]. 즉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보다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선택지 탐색시간이 더 길었다.

논 의

본 연구결과, 통제가능한 위협상황에서 정보를 비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정도에 있어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지 못했다. 만성적 근심이 낮은 개인적 통제감과 관련이 있었던 Davey(1994)와 Davey 등(1992)의 연구를 고려하면, 이 결과는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통제가능한 위협적인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통제지각이 낮더라도,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특징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비체계적 정보탐색의 정도가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보다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더 높았다. Janis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경계성은 의사결정 전에 관련정보를 충분히 탐색하고, 정보를 비판파적 방식으로 동화시키고, 대안들을 주의 깊게 평가하게 한다. 그러나 강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과도한 경계성을 갖기 때문에, 정보를 비조직적이고 불충분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후회하게 한다(Janis, 1982). 이를 본 결과에 적용해보면, 목표수준에 도달해야만 혐오적인 자극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각된 상황에서 과도한 경계성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비체계적 정보탐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기쇼크 위협의 스트레스상황에서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정보탐색이 일어나고, 의사결정과제의 수행수준이 낮음을 입증한 Keinan(198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통제가능한 위협상황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보탐색의 보속성이 높은 반면, 통제불가능한 위협조건에서는 정보탐색의 보속성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는 통제가능한 위협상황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통제지각이 낮아서 이미 탐색한 정보도 반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어떤 의사결정이 옳은가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있어야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과제수행을 잘 함으로써 혐오적 결과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높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해결가능한 문제상황에서 정보탐색에 불필요한 과도한 노력을 투여하는 특징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가 매우 낮았고 그 결과로 정보탐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 정보탐색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노력을 투여하는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해석과는 달리, 신중하게 정보를 탐색하여 보다 나은 문제해결을 보장하는 긍정적 특성이라는 대안적 추론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추과제의 정반응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근심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정반응수에서 차이가 없었다($F(1, 57)=0.16, p < .68$). 이는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의 이러한 반복적 정보탐색이 보다 나은 문제해결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불필요한 노력임을 지지한다.

문제상황의 통제가능성, 통제불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와 일치되게 적절한 문제해결노력을 기울이는 능력은 개인의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통제가능한 사건을 통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지 않으므로 손상이나 상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통제불가능한 사건을 통제가능하다고 평가하고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면 대처노력이 실패로 끝나게 되므로 좌절감과 실망감을 경험하게 된다(Folkman, 1984). 그런데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해결가능한 문제상황에서 이러한 문제해결노력이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탐색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투여하기 때문에 지치게 되고, 이후 문제해결행동을 실행하는데 투여할 생산적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가능한 위협조건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정보탐색시간에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가설 3이 지지되지 못했다.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 긴박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Pruzinsky & Borkovec, 1990)와 시간제한이 있는 과제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의사결정이 지연됨을 밝힌 Metzger 등(1990)의 연구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과제수행에 대한 시간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시간에 대해 긴박감을 느끼지 않았고, 그 결과로 정보탐색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시간제한이 있었다면 통제가능한 위협상황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통제지각이 낮아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오래 탐색하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해결가능한 문제상황에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의 낮은 통제지각이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탐색을 오래 하게 함을 밝히려는 연구에서, 시간제한 변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이 시사된다.

한편, 정보탐색시간에 관한 결과는 실험상황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즉 유추과제상황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실험이 종료되면 벗어나는 단

기적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이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정보탐색시간이 크게 지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유추문제가 사용되었고 따라서 본 결과를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실생활의 문제해결을 잘 반영해주는 과제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만성적 근심 이외에도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이에 관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기쇼크가 실제로 주어지지는 않았으나, 전기쇼크가 주어진다는 지시를 통한 위협적 상황의 조작이 과제수행 동안 일시적으로라도 피험자의 안녕을 해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문제상황에서 다른 문제해결과정에 비하여 정보탐색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투입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이러한 과도한 정보탐색이 한편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심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생활의 문제상황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적절한 시점에 해결방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여 문제해결행동을 실행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의 적기를 놓쳐 문제해결에 실패하였을 때 감수해야 하는 대가는 특히 해결가능한 실생활의 문제상황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최혜경(1997)의 연구에서 만성적 근심이 문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오리엔테이션과 관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해결에 실패하는 경험이 반복되었을 때 이들이 문제상황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고 위축된 반응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심리학적 중재에서 문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반응에 초점을 두어야 함이 시사된다. 즉, 이들이 문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특히 문제해결과정의 각 단계에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고, 정보탐색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는 것이 두드러진 문제점이라는 점이 시사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심리학적 중재는 문제해결을 위한 각 과정에 적절히 시간과 노력을 배분하고 적절한 시점에 의사결정을 하여 문제해결행동을 실행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혜경 (1997). 근심과 통제소재, 통제소망 및 사회적 문제해결간의 관계. 성격 및 개인차 연구, 6, 129-138
- Baradell, J. G. & Klein, K. (1993). Relationship of life stress and body consciousness to hypervigilant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67-273.
- Blankstein, K. R., & Flett, G. L. (1991). Cognitive components of test anxiety: A comparison of assessment and scoring methods. In M. Booth-Butterfield(Ed.), *Communication, Cognition, and Anxiety* (pp. 187-202). (Special issue of th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London: Sage.
- Blankstein, K. R., Flett, G. L., & Batten, I. (1989). Test anxiety and problem-solving self-appraisal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 531-540.
- Blankstein, K. R., Flett, G. L., Boase, P., & Toner, B. B. (1990). Thought listing and endorsement measures of self-referential thinking in test anxiety. *Anxiety Research*, 2, 103-111.
- Blankstein, K. R., Flett, G. L., & Watson, M. (1992). Test anxiety, coping, and academic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37-46.
- Blankstein, K. R., Toner, B. B., & Flett, G. L. (1989). Test anxiety and the contents of consciousness: Thought listing and endorsement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 269-286.
- Borkovec, T. D., Robinson, E., Pruzinsky, T., & DePree J. A. (1983). Preliminary exploration of worry: Som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1, 9-16.
- Borkovec, T. D., Shadick, R., & Hopkins, M. (1990). The nature of normal and pathological worry. In Barlow, D. & Raper, R.(Eds), *Chronic Anxiety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Burger, J. M. & Arkin, R. M. (1980). Prediction, control, and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482-491.
- Butler, L. & Meichenbaum, D. (1981). The assessment of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kills. In P. C. Kendall & S. D. Hollen(Eds.), *Assessment strategies for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Covington, M.V. (1986). Anatomy of failure-induced anxiety: The role of cognitive mediators. In R. Schwarzer (Ed.), *Self-related cognition in anxiety and motivation*(pp. 247-263). Hillsdale, NJ:

- Erlbaum
- Davey, G. C. L., Hampton, J., Farrell, J., & Davidson, S. (1992). Some characteristics of worrying: Evidence for worrying and anxiety as separate constru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133-147.
- Davey, G. C. L. (1993). A comparison of three worry questionnair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51-56.
- Davey, G. C. L. (1994). Worrying,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social problem-solving confidenc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2, 327-330.
- Dugas, M. J., Letarte, H., Rheume, J.,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5). Worry and problem solving: Evidence of a specific relationship.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109-120.
- D'Zurilla, T. J. (1986). *Problem-solving therapy: A social competence approach to clinical intervention*. New York: Springer.
- D'Zurilla, T. J. (1990). Problem-solving training for effective stress management and prevent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4, 327-355.
- D'Zurilla, T. J. &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156-163.
- Elliott, T., Godshall, F., Shrout, J. R., & Witty, T. E. (1990). Problem-solving appraisal, self-reported study habits, and performance of academically at-risk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03-207.
- Eysenck, H. J. & Eysenck, S. G. (1975).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Junior and Adult)*. London: Hodder & Stoughton.
- Flett, G. L. & Blankstein, K. R. (1994). Worry as a component of test anxiety: a multidimensional analysis. In G. C. L. Davey & F. Tallis(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pp. 61-89). Wiley, UK: Chichester.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39-852.
- Folkman, S., Lazarus, R.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Gatchel, R. J. & Proctor, J. D. (1976). Physiological correlates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27-34.
- Goldberg, D. P. & Huxley, P. (1980). *Mental illness in the community: The pathway to psychiatric care*. London: Tavistock.
- Goldberg, D. P., Bridges, K., Duncan-Jones, P., & Grayson, D. (1987). Dimensions of neurosis seen in primary care settings. *Psychological Medicine*, 17, 461-470.
- Janis, I. L. (1982). Decision-making under stress.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pp. 69-80). New York: Free Press.
- Keinan, G. (1987). Decision making under stress: Scanning of alternatives under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threa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39-644.
- Lader, M. (1975). The nature of clinical anxiety in modern society. In C. D. Spielberger & I. G.

- Sarason(Eds.), *Stress and anxiety* (Vol. 1, pp. 1-26). New York: Wiley.
- Lakey, B. (1988). Self-esteem, control beliefs, and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 as risk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subsequent dysphori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409-420.
- Liebert, R. M & Morris, L. W. (1967).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test anxiety: A distinction and some initial data. *Psychological Reports*, 20, 975-978.
- MacNaire, R. R. & Elliott, T. R. (1992). Self-perceived problem-solving ability, stress appraisal, and coping over tim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150-164.
- Metzger, R. L., Miller, M. L., Cohen, M., Sofka, M., & Borkovec, T. D. (1990). Worry changes decision making: The effect of negative thoughts on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78-88.
- Meyer, T. J., Miller, J., Metzger, R. L., & Borkovec, T. D.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8, 487-495.
- Nezu, A. M & D'Zurilla, T. J. (1989). Social problem solving and negative affective conditions. In P. C. Kendall & D. Watson(Eds.), *Anxiety and depression : Distinctive and overlapping features* (pp. 285-315). New York: Academic Press.
- Nezu A. M. & Ronan, G. F. (1988). Social problem-solving as a moderator of stress-related depressive symptoms: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34-138.
- Pruzinsky, T. & Borkovec, T. D. (1990). Cognitive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worrier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8, 507-512.
- Sadowski C. & Kelley, M. L. (1993). Social problem solving in suicid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21-127.
- Sarason, I.G.(1986). Test anxiety, worry, and cognitive interference. In R. Schwarzer(Ed.), *Self-related cognitions in anxiety and motivation*(pp. 19-33). Hillsdale, NJ: Erlbaum.
- Sherrod, D. R., Hage, J. N., Halpern, P. L., & Moore, B. S. (1977). The effects of personal causation and perceived control on responses to an aversive environment: The more control the bett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4-27.
- Stanley, B. & Gibson, A. J. (1985). The prevalence of chronic psychiatric morbid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0, 372-376.
- Tallis, F. (1990). *How to stop worrying*. London: Sheldon Press.
- Tallis, F., Eysenck, M., & Mathews, A. (1991). Elevated evidence requirements and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21-27.
- Tallis, F., Eysenck, M., & Mathews, A. (1992). A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nonpathological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161-168.
- Tallis, F., Davey, G. C. L., & Capuzzo, N. (1994). The phenomenology of non-pathological worry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G. C. L. Davey & F. Tallis(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1-89). Wiley, UK : Chichester.
- Wells, A. (1994). Attention and the control of worry. In G. C. L. Davey & F. Tallis(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 91-114). Chichester, UK: Wiley.

Wierzbicki, M. (1984). Social skills deficits and subsequent depressed mood in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605-610.

원 고 접 수 일 : 2002. 10. 17

수정원고접수일 : 2003. 1. 21

게 재 확 정 일 : 2003. 1. 24

The Dysfunctional Effects of Chronic Worry and Controllable-Uncontrollable Threats on Problem-Solving

Hye-Kyung, Choi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ysfunctional effects of chronic worriers' low perception of control on patterns and time to search for information. The 29 low worriers and 29 high worriers, who were selected from 158 undergraduate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experimental conditions. These subjects performed a computerized analogies task.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he controllable threat condition, high worriers did more preservative responses compared to low worriers. But in the uncontrollable threat condition,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chronic worriers' low perception of control in the controllable threat condition led to repetitive information search. Therefore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chronic worriers should focus upon efficient information search. Also it was suggested that time limit wa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dysfunctional effects of chronic worriers' low perception of control on problem-solving.

Keywords : chronic worry, low perception of control, preservation